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로마서 12장 1절-2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구원받은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때 삶이 예배가 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

- 본문 주일설교 (8/30) 중 -

신약성경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며,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경 속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귀결됩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신 목적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그저 '축복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다양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정과 물질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게 함으로써 세상과 온전히 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타협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할 길'을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사할 길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적 처소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정과 물질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성과 능력이 깊이 녹아 있으며, 구속의 은혜를 입어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는 이러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명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재를 나타내고 현실화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라는 밭에 심으셨습니다. 밭은 본래 더럽고 보잘 것없는 상태일지라도, 그 안에서 씨앗이 깨어지고 싹을 때 비로소 거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흙과 같이 허물 많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은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입니다. 내 안의 혈기와 자아, 내 고집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지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비로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성도가 숨 쉬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이 모두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변모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거짓과의 타협을 강요받을 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때, 내 안의 주님께서 그 상황을 친히 다스리시고 해결하십니다. 성도에게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환경이나 타인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죽지 않고 서술 퍼렇게 살아있는 '나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국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시 세상이라는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 흘러나갈 때, 우리가 밭을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 1:11)



Living as Spiritual Sacrifices and Temples of True Worship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our salvation? Many believers see it as a ticket to heaven or a guarantee of blessing. But the primary purpose of redemption is worship—offering our lives daily as a holy, living sacrifice to God.

Throughout Scripture, redemption leads directly to worship. When Moses stood before Pharaoh requesting freedom for God's people, Pharaoh tried to negotiate compromises to keep the Israelites from leaving permanently. This resembles the way Satan today leaves believers with lingering attachments to human affection and material things, preventing them from severing ties with the world and moving toward true worship. But Moses refused every compromise and declared they would go on a "three days' journey." For us, this journey signifies the death of Christ and His resurrection on the third day. True worship can begin only after we break the chains of worldly attachment, die to our "old self," and resurrect into new life in Christ.

The book of Romans contains some of Scripture's most central truths. Chapters 1-11 deal with how a fallen sinner is redeemed by God's grace. The rest of the book answers a different question: how should redeemed believers now live? The apostle Paul wrote that God's divinity and power are woven throughout the universe, and believers who grow spiritually through grace come to recognize His living presence ever more clearly within His creation. Yet most people who claim to know redemption stop at the shallowest layer: they are grateful their sins are forgiven and go no further, never grasping how vast the new life in Christ actually is.

Humans are the only beings on earth

called to manifest God's living presence. Scripture refers to us as "God's field" and "God's temple." A field exists to bring forth what was planted in it; a temple exists to house what has come to dwell there. Neither exists just for itself. God planted Christ, the seed, into us—a field made of soil. The nature of soil needs to be dirty—there has to be decaying matter in it to become useful. In the same way, the Lord came for dirty sinners rather than the righteous. When the seed of Christ is planted within our sinful selves, we become a holy temple where God dwells, and His life is manifested through us into the world.

In the Old Testament, believers went to a temple to meet God. Today, the very body of the believer who confesses Christ as Lord has become that temple—there is no other structure to visit. This means Sunday worship was never meant to be the point. The real question is what happens the rest of the week, at work, school, or home. This is why despite faithfully attending church for years, a person can remain essentially unchanged. That is because attending church is not the same as offering true worship. A person can passionately sing every hymn and generously give tithes and donations, and still return home to the same temper, the same anxieties, and the same old self running the show. As the prophet Isaiah warned, God is not pleased by countless sacrifices and offerings if the ownership of your heart is unchanged [Isaiah 1:11-15].

Real spiritual worship happens daily the moment the old self realizes it is not the driver but a passenger, and surrenders the wheel to Christ. Therefore, the most vital practice of worship is the daily

discipline of dying to your old self and resurrecting as a new life in Christ. Because we were given free will, as long as we keep the stubborn ego alive and we continue to choose to take care of everything ourselves rather than surrender to Him; the power of Christ holds back from being manifested. But when that "I" dies, the Lord within begins to flow out, transforming everywhere we go into a place of worship.

Whether facing unfair treatment or pressure to compromise at work, trying to resolve things in our own strength leaves us reacting with impatience and distress. But when we proclaim that we have died and risen again with Christ, He takes over and resolves the situation. For a believer, the workplace is not just a place to earn a living but a spiritual training ground where faith grows. We come to realize that the obstacles or people who oppose us are not the true enemy of the cross—rather, the real enemy of the cross is the "old self" that refuses to die.

Christians live as citizens of God's kingdom, beyond any nationality, and go into the world as witnesses of Christ. When believers gather to share the Word and fellowship, it is a holy assembly where they testify to the grace the Lord worked in each of their lives throughout the week, and strengthen themselves once more to go out into the spiritual battlefield of the world. When "I" die and Christ within me flows out through my life, the kingdom of God will advance and expand wherever we go as living sacrifices and true temples of Christ.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유년부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

